

儒敎의 憂患意識과 退溪의 「敬」**

—「聖學十圖」序를 中心으로—

安 炳 周*

• 目 次 •

- | | |
|-----------------|--|
| I. 儒敎의 憂患意識 | III. 退溪에 있어서의 憂患意識과 「敬」
—「聖學十圖」序를 中心으로— |
| II. 「聖學十圖」製進의 뜻 | IV. 結言 |

I. 儒敎의 憂患意識

「憂患意識」이란 말은 중국의 徐復觀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쓰여지기 시작하였으며 牟宗三교수의 저서 「중국철학적 특질」(民國五二年·人生出版社)에 의해 학계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다.

「<憂患意識>이란 徐復觀 선생이 처음으로 제출한 하나의 관념이다. 『民主評論』 제11권 제21기에 실린 그의 <周初宗教中人文精神之躍動>이란 논문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이것은 하나의 매우 훌륭한 관념이다. 이 관념을 통해 기독교의 罪惡怖慄의식 및 불교의 苦業無常의식과 매우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 <우환의식 속의 敬·敬德·明德·天命>이라는 제목의 내용은 또한 대체로 徐 선생의 이 논문을 근거로 하여 講述한 것이다.¹⁾」라고 牟교수는 말하고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5호(1980) 게재논문

0) 牟宗三, 「中國哲學的特質」 p.13

있다. 여기서 우환의식은 기독교의 恐怖意識과 불교의 古業意識에 대비되고 있다.

유교의 우환의식은 퇴계의 철학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 퇴계의 「성학십도」序에는 특히 聖學의 근거로서 유교의 우환의식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또한 「성학십도」序에는 聖學의 기본으로 생각함(思)과 배움(學)이 제시되어 있고, 이 思와 學을 겸하는 방도로서의 敬이 매우 중시되어 있다.²⁾ 그리고 퇴계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성학십도」의 열개의 그림은 모두 敬으로 삼고 있다.³⁾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유교의 우환의식에 대하여 牟宗三교수의 설명을 간추려 약술하고자 한다.

중국철학(특히 유학)이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은 우환의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⁴⁾ 중국인의 우환의식은 특별히 강렬해서 이같은 우환의식으로부터 도덕의식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 우환은 杞人이 하늘 무너질까 걱정하는 그런 우환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재화나 권세의 부족을 근심하는 우환도 아니다. 오직 德의 未修와 學의 未講을 걱정하는 도덕의식으로서의 참다운 우환인 것이다.⁵⁾

이에 반하여 서양의 종교적 정서는 우환의식에 근원을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공포의식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늘이 내리는 재앙(天災)은 하느님이 인간의 원죄에 대하여 내린 징벌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인간은 天災(하느님의 징벌) 가운데 살면서 다만 공포를 느끼며 寬恕를 애처로이 구할 뿐이다. 이로써 보면 기독교의 근원은 확실히 전형적인 怖慄意識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持敬者, 又所以兼思學, 貫動靜, 合內外, 一顯微之道也. 「退溪全書」(이하 「全書」라함.)卷七, <進聖學十圖筭> 「全書」상(1958年,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影印上下券 中의 상) p.197

3) 今茲十圖, 皆以敬爲主焉. -「全書」 권7, <進聖學十圖筭并圖>의 第四大學圖의 退溪의 說明文참조. 「全書」상 p.203

4) 牟宗三, 前揭書 p.12

5) 牟宗三, 前揭書 p.12 - 他所憂的不是財貨權勢的未足, 而是德之未修與學之未講.

불교에 있어서도 그 內容眞理⁶⁾의 路向이 기독교와 같고 다 함께 인생의 負面으로부터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죄(원죄)의식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苦(苦業)의식을 통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불교의 苦業意識은 解脫出世의 사상을 낳는다.

이상 요컨대 기독교와 불교의 양교는 人生負面의 「罪」 또는 「苦」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유교는 人生正面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 또한 기독교와 불교의 恐怖意識이나 苦業意識이 종교의식인데 반하여 유교의 우환의식에서는 도덕의식이 생겨난다.

牟宗三교수의 「中國哲學的特質」의 第三講에서는 <우환의식 속의 敬·敬德·明德·天命>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敬 또는 敬德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요약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牟교수에 의하면 우환의 초보적인 표현은 「臨事而懼」(『論語』述而편)하는, 책임을 지는 성실한 태도이다.⁷⁾

그리고 이 책임을 지는 성실성, 즉 負責認真으로부터 引發되어 나오는 것이 戒愼恐懼하는 「敬」의 관념이다. 그리고 이 「敬」은 점차 一個의 도덕관념으로 형성되어, 그 까닭에 「敬德」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敬」과 「敬德」은 공자이전의 典籍에 이미 보이고 있다. 이제 <尙書>를 예로 들면 召誥편에 太保召公의 이런 말이 있다.

「이에 우리 王이 萬民統治의 大命을 받으신 것은 한없이 좋은 일이기도 하나, 또한 한없이 근심되는 중대사입니다. 아아! 어찌하뇨. 어찌 삼가지(敬) 않을 수 있겠습니까」(惟王受命, 無疆惟休, 亦無疆惟恤, 嗚呼曷其奈何不敬)

우환(恤)으로부터 敬으로 설명이 미치고 있음을 이 말에서 볼 수 있다.

6) 앞에 밝혔거니와 이 부분의 설명은 牟교수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牟교수는 이 「內容眞理」란 말을 영어로 「Intensional Truth」라고 하고 있다.

7) 牟宗三, 前揭書 p.15

召誥篇에는 역시 太保召公의 다음과 같은 말이 곧 이어 보이고 있다.

「아아! 하늘도 또한 사방의 백성들을 애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디 天命을 돌아보아 근면하시옵소서⁸⁾. 왕께서는 부디 힘써 덕을 삼가시옵소서」(嗚呼, 天亦哀于四方民, 其眷命懋用, 王其疾敬德)

「敬德」은 곧 牟교수의 설명 그대로 「敬謹於德行」⁹⁾이다. 약술한다는 것이 그만 길어진 느낌이 드는데 이상에서 설명한 유교의 우환의식, 그 속에 「敬」, 「敬德」을 내포하고 있는 도덕의식으로서의 우환의식에 관한 牟宗三교수의 해설은 매우 적절하며 유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학자들에게 도움을 준 바가 매우 크다. 여기에 필자가 사전을 덧붙칠 것이 따로 없겠으나, 「성학십도」 序에 보이는 퇴계에 있어서의 우환의식과 敬의 문제를 다루면서 두가지의 견해만을 첨가하기로 한다.

하나, 주로 옛 고전을 중심으로 볼 때 牟교수의 지적대로 우환의 초보적 표현인 「臨事而懼」하는 負責認真知的 態度로부터 戒愼恐懼하는 「敬」의 관념이 나오고 더 나아가 점차 「敬德」이란 하나의 도덕관념이 형성되었는데 퇴계에 이르러서의 「敬」은 이 한 글자만으로 「삼간다」, 「敬愼한다」, 「敬謹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敬德」의 뜻까지도 포괄하는 도덕관념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이다. 이것은 반드시 퇴계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이같은 의미의 「敬」이 퇴계철학에서 더 할 수 없이 강조되었다는 데에, 특히 本論考의 주제가 되는 「성학십도」에서도 매우 강조되어 있다는 데에 그 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敬> 字의 한 字가 어찌 聖學의 始終의 要領이 아니겠는가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¹⁰⁾」라는 「大學或問」의 朱子の 말의 인용에 이은

8) 이 부분의 원문 「其眷命懋用」의 해석만은 牟교수나 在來의 일반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았다. 「하늘이 敬에 힘쓰는 자를 眷顧하여 그에게 降命한다」는 뜻으로 보기보다는 아래의 「王其疾敬德」과 거의 同議의 反復表現으로 解釋하고 있는 赤塚忠교수의 견해를 따랐다. 日本, 平凡社發行, 赤塚忠譯 「書經 易經(抄)」, <中國 古典文學大系 I, 1972> p.241 참조

9) 牟宗三, 前掲書 p.16

퇴계 자신의 설명에서 「이제 이 十圖도 다 敬을 주로 삼았습니다.(今茲十圖, 皆以敬爲主焉)¹¹⁾라고 한 것만을 보아도 이 「敬」 한 字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유교의 우환의식이 도덕의식임과 동시에 정치의식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하여서이다. 그것은 德之未修와 學之未講을 걱정하는 도덕의식으로서의 우환인 동시에 爲民(for the people)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에 대한 정치의식으로서의 우환이기도 한 것이다. 「孟子」의 梁惠王章句에 특히 반복강조되고 있는 與民同樂의 爲民意識이나 范仲淹의 「岳陽樓記」 등에서 정치의식으로서의 유교의 우환의식을 찾아 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¹²⁾

II. 「聖學十圖」 製進의 뜻

聖學이란 聖王의 學(「聖王」을 배우는 학문)과 聖人の 學(「聖人」을 배우는 학문)의 두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퇴계의 「聖學十圖」에 있어서의 「聖學」도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聖王의 學(帝王學)이지만, 그것이 유교의 덕치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學問·成德으로서의 정치의 大本을 삼고 있어,¹³⁾ 聖人の 學의 뜻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퇴계의 「戊辰六條疏」의 第三條<敦聖學以立治本>의 설명에 퇴계 스스로 「聖學」의 동의어로서 「帝王之學」¹⁴⁾이란 말을 쓰고 있고, 또한 「聖人の

10) 「全書」 권7. <進聖學十圖筭并圖>의 第四大學圖에 퇴계에 의해 인용된 주자 <大學或問> 속에 나오는 말. 「全書」상 p.203

11) 「全書」 상 p.203

12) 「맹자」에서는 특히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 亦非也.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未之有也」(梁惠王下4)라는 글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范希文의 「岳陽樓記」에는 「進亦憂, 退亦憂」라든가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이라는 말이 보이고 있다.

13) 豈不以學問成德, 爲治之大本也 라는 말이 「戊辰六條疏」(全書)卷六 敦疏의 第三條에 보인다. 「全書」상 p.184

學』이라고 하면 帝王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聖王之學』이란 뜻이라면 帝王에게만 적용되며 「聖王』이란 말이 개념상 聖人之德을 갖춘 「王者』를 의미하고 있어, 「聖人之學』과 「聖王之學』의 개념상의 구별에 유의하는 한 퇴계 「성학십도』의 「聖學』도 분명히 말하면 「聖王之學』이다. 따라서 이같은 의미의 聖學의 근거 속에 정치의식으로서의 우환의식을 찾기란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聖學十圖』序에는 「人主一心, 萬機所由, 百責所萃」¹⁵⁾말이 보인다. 이 「人主一心』을 「사람은 한마음[一心]을 주로 한다.』라고 해석한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이는 「人主[帝王]의 一心』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단순한 착각에서 온 오역이거나 아니면 「聖學』의 의미의 개념상의 구별에 유의하지 않은 데서 온 오역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李相殷선생도 지적하고 있듯이¹⁶⁾ 「聖人之德을 갖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의 어느 누구이거나 帝王이거나를 막론하고 학문의 목적과 방법이 크게 다를 것이 없다. 聖王之學(帝王之學)이라 해서 별개의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정치의식으로서의 우환의식과 도덕의식으로서의 우환의식의 결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王者는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王者有德說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당현종 때 張九齡이 金鑑錄(金鏡錄이라고도 함)을 바치고, 역시 당현종 때 宋璟¹⁷⁾이 無逸圖를 드리고, 唐 敬宗 때의 李德裕가 舟辰六箴을 드리고, 송의 진덕수가 幽風七月圖를 올린 것과 같은 人臣의 憂國愛君하는 간절한 충정과 陳善納誨하는 지극한 誠意¹⁸⁾를 가지고 당시 判中

14) 「全書』상 p.184

15) 「全書』상 p.196

16) 李相殷, 「聖學十圖釋解』(1974년, 退溪學研究院編輯, 韓國書院發行)의 머릿말 p.5 참조

17) 宋璟은 唐玄宗의 開元初에 刑部尙書를 拜하고 廣平郡公에 封하여 진 일이 있다. 「退溪文集考證』에 宋廣平이라고 하고 있음이 보인다.

18) 若張九齡之進金鑑錄, 宋璟之陳無逸圖, 李德裕之獻丹辰六箴, 眞德秀之上幽風七月圖之類, 其愛君憂國拳拳之深哀, 陳善納誨懇懇之至意, 人君可不深念而敬服也哉. - 「聖學十圖』序 「全書』상 p.196

樞府事였던 퇴계는 새로 등극한 17세되는 宣祖에게 「성학십도」의 열 그림을 바치어 王으로 하여금 병풍¹⁹⁾으로 만들어 두고두고 볼 것을 청하였다.

「성학십도」를 만들어 그것을 왕에게 올림에 있어 앞에 붙인 글 「進聖學十圖」를 여기서는 편의상 「성학십도」序라 하거니와, 이 「성학십도」序에 의하면 十圖中 七圖는 기왕에 있던 것을 빌린 것이고(그 가운데 「心統性情圖」만은 林隱程氏의 그림에 말미암아 퇴계가 두개의 小圖를 붙였다. 곧 「心統性情圖」上·中·下의 三圖중 上圖는 程氏의 것, 中圖와 下圖는 퇴계 자신의 것이다.), 나머지 三圖는 퇴계 자신이 만든 것이다²⁰⁾. 그리고 그 三圖도 비록 그림은 퇴계 자신이 만들었으나, 그 글과 그 뜻, 그리고 條目規畫이 하나같이 前賢들에 의해 서술된 것이요 퇴계 자신의 창작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²¹⁾

그러나 舊圖의 선택과 그 중 「心統性情圖」에 새로 붙인 2개의 小圖의 新作, 그리고 「小學圖」와 「百錄同規圖」와 「夙興夜寐箴圖」의 新作으로 이루어진 「성학십도」전체의 구성은 퇴계의 학문적 깊이와 스스로의 창의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非臣創造」라는 퇴계 자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퇴계의 창의성있는 취사선택의 안목과 철학적인 체계 구성력 없이는 불가능함은 말할 것도 없다. 李相殷선생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十圖의 圖說의 글은 비록 여러 先儒들의 글 속에서 채택한 것이지만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안목과 또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철학적 구성을 이루어 놓은 것은 퇴계의 道學·理學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아니 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깊이를 탄복하여 중화민국의 학자 梁啓超는 聖學十圖贊詩를 지어 퇴계를 <德 높으신 李夫子(巍巍李夫子)>라 부르고, <十圖는 理學의 秘訣을 전하고 百世의 人心에 타이른다(十圖傳理訣,百世詔人心)>라 했고, <聲聞·教化가 삼백년이 되는 이 때 만

19) 付之該司, 作爲御屏一坐. 「성학십도」序. 「全書」상 p.197

20) 「全書」상 p.196

21) 圖雖臣作, 而其交其旨, 條目規畫, 一述於前賢, 而非臣創造. 「全書」상 p.196

국이 다같이 欽仰한다.(聲教三百載,萬國乃同欽)>라고 稱頌했던 것이다.²²⁾

참고로 「성학십도」의 각국의 작자와 채록된 글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太極圖=周濂溪. 周濂溪 太極圖說, 朱子註, 退溪說明.
2. 西銘圖=林隱程氏(程復心). 張橫渠 西銘原文, 退溪引用의 宋儒의 西銘解說, 退溪說明.
3. 小學圖=退溪. 朱子小學題辭 朱子大學或問의 말 退溪說明
4. 大學圖=朝鮮朝 權近(陽村). 大學經文, 朱子 大學或問의 말, 退溪說明.
5. 白鹿洞規圖=退溪. 洞規後序原文, 退溪說明.
6. 心統性情圖=林隱程氏(上圖), 退溪(中·下圖). 林隱程氏(程復心)의 心統性情圖說原文(「臣謹按」)으로 시작되는 退溪의 글이 붙어 있음. 「圖有未穩處稍有更定」이란 退溪의 말이 보임, 退溪說明.
7. 仁說圖=朱子. 朱子 仁說原文, 退溪說明.
8. 心學圖=林隱程氏, 林隱程氏(程復心)의 心學圖說原文, 退溪說明.
9. 敬齋箴圖=王魯齋(柏). 朱子 敬齋箴原文, 退溪說明
10. 夙興夜寐箴圖=退溪. 陳南塘(柏)의 夙興夜寐箴圖原文, 退溪說明.

그러면 퇴계가 「성학십도」를 17세의 군주인 선조에게 製進한 뜻은 무엇인가. 역시 선조에게 올린 「戊辰六條疏」의 第三條에서 퇴계는 「敦聖學, 以立治本」을 陳言하고 있는데 이 「성학십도」 製進의 뜻은 그 六條疏의 疏意를 管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군주로 하여금 爲治의 大本인 德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³⁾

퇴계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第一圖로부터 第五圖까지의 五圖는 天道

22) 李相殷, 前掲書 p.7

23) 李相殷, 前掲書 p.517 필자의 이 부분의 설명은 李先生의 論旨에 많이 따르고 있음을 밝혀둔다.

에 근본한 것으로서 功이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는 데에 있는 것이며²⁴⁾ 第六圖로부터 第十圖까지의 五圖는 心性에 근원한 것으로서 요는 日用에 힘쓰고 敬畏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다.²⁵⁾ 이 퇴계의 말을 보더라도 「성학십도」를 만든 것이 군주로 하여금 爲治의 大本인 德을 세우기 위하여 만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²⁶⁾ 이것이 王者有德說에 근거하고 있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이다.

또한 앞에서 「성학십도」 제진의 뜻은 「戊辰六條疏」의 疎義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였거니와, 六條의 條目은 其一(重繼統, 以全仁孝)과 其二(杜讒間, 以親兩宮)의 두 條目에서 왕위계승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논급하고 있는 이외로는 나머지 四條目이 모두 本重視의 本末論에 입각한 근본의 문제, 大本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목으로 여겨지는 것이 第三條의 <敦聖學, 以立治本>이다.

이 第三條에서 퇴계는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란 「尙書」 大禹謨편의 十六字, 中庸章句序에서 「堯舜禹相傳之心法」이라고 주자에 의해 表彰된 이래로 도학의 중심과제가 된 이 十六字의 글을 聖學(帝王之學)에 있어서의 心法의 要의 연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學問·成德으로써 정치(爲治)의 大本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하고, 爲學의 大法으로 「精一執中」을 들고는 「大法으로써 大本을 세우면 천하의 정치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

24) 以上五圖, 本於天道, 而功在明人倫懋德業. 「全書」 p. 204

25) 以上五圖, 原於心性, 而要在勉日用崇敬畏. 「全書」 p.211

26) 李相殷先生은 이 德은 바로 大學의 「明明德」의 德이요 太極圖說의 「定之以中正仁義, 而主精立人極」이라 한 人極으로서의 덕이며 西銘에서 말한 「聖其合德」의 德이며 仁說圖에서 말한 「天地生物之心」으로서의 仁의 德이며 心學圖에서 말한 「良心」 「本心」 「赤子心」 「大人之心」 「道心」을 뜻하는 德이며 心統性情圖에서 말한 本然之性的 發인 四端의 德이라고 말하고 이 德을 어떻게 올바로 인식하고 어떻게 人倫日用에 있어서 體得實踐하며 어떻게 帝王의 자리에서 그것을 適切하게 政治에 具現시키는가 하는 구체적 방법 節次를 말한 것이 小學圖, 白鹿洞規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李相殷 前揭書 p.617

다²⁷⁾. 가치합리성에 입각한 도덕실천의 학문, 인간적 진실추구의 도학을 통한 덕의 완성을 정치의 大本으로 삼아 「정치의 근본(治本)을 세울 것」을 주장하는 이 「戊辰六條疏」²⁸⁾ 第三條 <敦聖學, 以立治本>의 疎義는 그대로 「聖學十圖」에 관철되어 있다.

Ⅲ. 退溪에 있어서의 憂患意識과 「敬」

—「聖學十圖」序를 中心으로—

「성학십도」의 聖學이 일단 聖王之學(帝王之學)을 의미함은 전술한 바이다. 퇴계의 「성학십도」序 (進聖學十圖)를 편의상 이렇게 표현함을 이미 앞에서도 말하였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하물며 人主의 一心은 萬機가 말미암는 바요 百責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人主의 마음> 衆欲이 互攻하고 群邪가 번갈아 뚫어대어 한번 怠忽해지고 방종하게 되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는 것 같아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옛 聖帝와 明王들은 이것을 憂患하였습니다. 그래서 兢兢業業하며 小心畏愼하기를 날마다 날마다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況人主一心, 萬機所由, 百責所萃, 衆欲互攻, 群邪迭鑽, 一有怠忽, 而放縱繼之, 則如山之崩, 如海之蕩, 誰得而禦之. 古之聖帝明王, 有憂於此. 是以兢兢業業, 小心畏愼, 日復一日, 猶以爲未也)²⁹⁾

憂患은 원문에는 「憂」 한 字로 되어있고, 「兢兢業業」은 원문에 있는 대로 인데 이 말은 <尙書> 臬陶謨편으로부터의 인용으로 「위태로이 여

27) 「全書」상 p.184

28) 戊辰六條疏와 성학십도는 모두 퇴계선생 68세(戊辰年, 1568)時에 製進되었다. 전자는 8월에, 후자는 12월에 퇴계선생은 바로 2년 후인 庚午(1570)에 돌아가셨는데 戊辰六條疏와 성학십도의 製進의 시기가 지극히 밀접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9) 「全書」상 p.196

기고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앞의 一에서 유교의 우환의식에 대하여 보았거니와 퇴계에 있어서도 이 유교의 우환의식은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 그리하여 퇴계는

「그리하여 師傅의 官을 세우고 諫諍의 職을 나열하여 앞에는 <疑>, 위에는 <丞>, 좌에는 <輔>, 右에는 <弼>을 두고, 수레를 탈 때는 旅賁³⁰⁾의 規가 있고, 자리에 임하여선 官師의 法典이 있고, 几에 기댔 때는 訓誦³¹⁾의 諫이 있고, 寐室에 들어서는 替御³²⁾의 箴이 있고, 일에 당면하여서는 替史³³⁾의 導가 있고, 宴居에는 工師³⁴⁾의 誦이 있으며, 심지어 소반과 밥그릇 책상과 지팡이 칼·들창문에 이르기까지 눈이 가는 곳과 몸이 處하는 곳 모두에 銘이나 戒가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고 몸을 防範하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였습니다.」

(立師傅之官, 列諫諍之職, 前有疑, 後有丞, 左有輔, 右有弼, 在輿有旅賁之規, 位替有官師之典, 倚几有訓誦之諫, 居寢有替御之箴, 臨事有替師之導, 宴居有工師之誦, 以至盤盂几杖刀劍戶牖, 凡目之所寓, 身之所處, 無不有銘有戒, 其所以維持此心, 防範此身者, 若是其至矣)³⁵⁾

라 하여 帝王의 우환의식의 철저함과 그것이 帝王像의 엄격한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古之聖帝明王之 우환의식은 곧 유교의 우환의식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우환의식은 나라의 근본[邦本]인 백성³⁶⁾을 위한 爲民(for the people)의 우환이라는 점, 백성을 통치하는 정치의 주체인 제왕의 우환이라는 점에서는 정치의식으로서의 우환의식이다. 그리고 동시에 爲民·憂民·愛民의 정치를 위한 帝王의 「있어야 할 모습」으로 聖王之 德을

30) <疑> <丞> <輔> <弼>을 四輔의 官이라고 한다. <예기>文王世子에 보이는 말.

31) 聖賢의 교훈을 외워서 帝王에게 들려주는 職責

32) 音 「설어」. 帝王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侍臣

33) <漢書> 賈誼傳에 「替史誦侍, 工師諫箴」이라고 있다.

34) 前註 32 참조

35) 「全書」상 p.196

36) 民惟邦本, 本固邦寧. -<상서> 夏書五子之歌편

갖추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서는 도덕의식으로서의 우환의식이기도 하다. 여기에 정치의식으로서의 우환의식과 도덕의식으로서의 우환의식의 結付를 보게 되는데 퇴계의 「성학십도」에서는 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성학십도」에 일관하고 있는 「敬」의 관념이다. 또한 이 퇴계의 「敬」이 「삼간다」, 「敬愼한다」, 「敬謹한다」에서 더 나아가 「敬德」의 뜻까지도 포괄하는 도덕관념으로 발전된 것이고, 주자와 같은 이가 「敬」한 字의 중요성을 이미 지적하고 있어 반드시 퇴계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나 이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敬」한 字가 퇴계철학, 특히 이 「성학십도」에서 더할 수 없이 강조된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전술한 바이다.

「성학십도」序에서 聖門의 學에 있어서의 도덕적 수양의 근본으로 뜻을 세울것[立志]을 말하고, 立志를 통해 배움[學]과 생각함[思]에 힘쓸 것을 말한 퇴계는 「敬」을 지키는 것이 思와 學을 겸하는 방도라 하고 있다.

「思와 學은 서로 發明하고 서로 이익되는 것입니다. 옳으려 원컨대 聖明께서는이 이치를 깊이 통찰하시어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우시어 [立志] <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처럼 된다.>³⁷⁾ 라는 생각으로 奮然히 <學과 思의> 두가지 功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敬>을 지키는 것은 또 思와 學을 겸하고, 動과 靜을 貫하고, 內와 外를 合하고, 顯과 微를 一로 하는 方道입니다.」

(思與學交相發而互相益也. 伏顯聖明深燭此理, 先須立志, 以爲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奮然用力於二者之功, 而持敬者又所以兼思學, 貫動靜, 合內外, 一顯微之道也.³⁸⁾

라고 「성학십도」序에서 말한 퇴계는 第四大學圖에서는

「或者 말하기를 敬을 그대는 어떻게 공부하였는가. 朱子 말하기를, 程

37) 이 말은 <孟子> 滕文公上에 顏淵의 말로 인용되어 있음

38) 「全書」上 p.197

子は 일찍이 <主一無適>을 말하였고 <整齊嚴肅>으로 말하였으며 門人 謝氏의 說에는 <常惺惺法>이라 말한 일이 있고 尹氏의 說에는 <그 마음을 수렴하여 一物에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다. 敬이란 一心의 主帝요 萬事の 근본이다 …… 그렇다면 <敬>자 한 字가 어찌 聖學의 始終의 要領이 아니겠는가」

(或曰, 敬若何以用力耶. 朱子曰, 程子嘗以主一無適言之, 嘗以整齊嚴肅言之, 門人謝氏之說, 則有所謂常惺惺法者焉, 尹氏之說, 則有其心收斂不容一物者焉云云, 敬者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 ……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³⁹⁾

라는 朱子 「大學或問」의 말을 인용하여 특히 「敬者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라고 한 朱子의 말을 부각시키고는 퇴계 스스로의 설명에서, 「이제 이 十圖도 다 敬을 주로 삼았습니다.」(今茲十圖, 皆以敬爲主焉)⁴⁰⁾라고 하여 「성학십도」 전체에 <敬>이 일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퇴계는 이것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의 설명에 自註하여 「太極圖說에는 <靜>을 말하고 <敬>은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朱子註 가운데서 <敬>을 말한 것으로 보완하였다.」(太極圖說, 言靜不言敬, 朱子註中言敬以補之)⁴¹⁾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성리학의 도덕적 엄숙주의가 퇴계에 이르러 다시 더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성학십도」의 여러 곳에 보이는 <敬>의 설명이나 <敬>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聖學十圖」 序에 보면 이미 언급한 것 이외로도

「敬畏를 日用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中和·位育(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 <中庸>의 功을 이룰 수 있고, 德行이 羣倫에서 벗어나지 않으

39) 「全書」上 p.203

40) 前揭同

41) 前揭同. 太極圖說의 주자의 해설(주자註)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修之悖之, 亦在乎敬肆之間而已矣. 敬則欲寡而理明寡之又寡, 以至於無, 則靜虛動直, 而聖可學矣」 - 「全書」상 p.199

면 天人合一의 妙를 여기에 얻을 수 있다.
 (敬畏不離乎日用, 而中和位育之功可致. 德行不外乎彝倫, 而天人合一之
 妙斯得矣)⁴²⁾

라고 하였으며 小學圖에서는 그림 속에 「敬身」이란 글자가 네 곳이나
 보이고 있고 퇴계인용의 주자 「大學或問」의

「나는 들으니 <敬>字 한 字는 聖學의 시작을 이루고 끝을 이루는 所以
 의 것이다」
 (吾聞敬之一字, 聖學之所以成始成終者)⁴³⁾

라는 주자의 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大學圖에 언급되고 있는 <敬>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 있어 略하
 거니와, 白鹿洞規後序에는 「戒謹恐懼」⁴⁴⁾란 말이 보이고 있고, 心統性情
 圖의 퇴계 설명 속에서도 「學者는 진실로 능히 持敬에 專一」(學者誠能
 一於持敬)⁴⁵⁾이라는 말이 보이고, 心學圖에는 <心>자와 <敬>자가 특히
 눈에 띄게 크게 圖示되어 있는데 林隱程氏(程復心)이 心學圖說에는 「대
 개 心이란 一身의 主宰요, 敬은 또 一心의 主宰이다.(蓋心者一身之主宰,
 而敬又一心之主宰也)⁴⁶⁾라는 말이 보이고 있다. <敬을 一心의 主宰>라
 고 한 말이나 뒤이어 보이고 있는 「主一無適」이니, 「整齋嚴肅」이니,
 「一心收斂」이니, 「常惺惺」이니 하는 말들은 大學圖에 인용한 朱子 「大
 學或問」의 말 속에서도 보이고 있다. 중복제시를 통한 퇴계의 <敬>중
 시, <敬>강조를 이해할 수 있다.

敬齋箴圖에는 主題에 글자 그대로 <敬>字가 있고, 그림의 중앙에 크

42) 「全書」上 p.198

43) 「全書」上 p.202 「大學圖」에 인용한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라
 한 朱子의 말과 같은 뜻이다.

44) 其所以戒謹恐懼者, 必有嚴於彼者矣. - 「全書」상 p.204

45) 「全書」상 p.204

46) 「全書」상 p. 208

계 위치한 <心>字에는 主一無適이라는 네 글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퇴계의 설명에는 「敬이 聖學의 始와 終이 된다는 말이 어찌 참말이 아니겠는가」(敬爲聖學之始終，豈不信哉)⁴⁷⁾라는 말이 보인다. 이는 「敬之一字，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라든가 「敬之一字，聖學之所以成始成終者也」라 한 주자의 말의 반복강조이다. 끝으로 夙興夜寐箴圖에는 그림의 한 가운데 중앙에 「敬」자를 크게 그려 놓고 있는데 이 그림은 퇴계 자신이 만든 것이다.

IV. 結 言

이상 요컨대 퇴계의 「성학십도」 序에는 유교의 우환의식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어 있는데, 이 퇴계의 우환의식은 곧 정치의식과 도덕의식이 결부된 우환의식으로서의 <敬>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퇴계의 「성학십도」에 일관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敬> 한 字로 끝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十圖 전체에 걸쳐서 <敬>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敬> 한 字의 중시가 반드시 퇴계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성학십도」의 구성을 통해 퇴계철학에서 <敬> 한 字가 더할 수 없이 강조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스스로의 창작이 아니라는 퇴계 자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十圖」의 구성이 퇴계의 창의성 있는 취사선택의 안목과 철학적인 체계구성력 없이는 불가능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치의식으로서의 유교의 우환의식은 기본적으로 爲民(for the people)의 정치가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군주에 대한 가치합리성⁴⁸⁾에 입각한 도덕실천의 요청

47) 「全書」 상 p. 210

48) 價値合理性和 뒤에 보이는 目的合理性이란 말은 막스 베버(Max Weber)의 용어인데 이 용어를 性理學이나 實學의 概念規定에 도입한 것은 일본의 源了圓에서 시작된 것이다. 源了圓(安柄周譯), 「近世日本實學에 있어서의 李退溪思想의 受容」(『퇴계학보』 18輯 1978) 참조.

으로 나타난다. 「孟子」(梁惠王下)에 「임금을 막는 것이 무슨 허물이리오. 임금<의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은 임금을 좋아하는 것이다.」(畜君何尤, 畜君者好君也)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것은 퇴계의 「聖學十圖」序의 앞부분에 우환의식과 함께 전개되고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도덕실천의 요청에 입각한 帝王像의 규정이다. 帝王像의 규정을 통한 정치에의 기대는 자칫하면 末보다 本만을 중시하는 本末論에 빠져 현실(末)의 모순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처방(帝王=爲政者의 德의 완성)에만 의존하여, 목적합리성에 입각한 民을 위한 실용적·실증적인 功利의 추구를 외면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敬>을 통한 도덕적 엄숙주의의 이상이 없이는 道義가 무너져가고 理想없는 현실처방의 반복순환 속에서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는 현실사회의 무방항성에 대한 제동력은 영원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